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구절: [요한복음 3: 16-17]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간들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어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분을 통하여 구원 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몰라 방황하고 때로는 자살의 길을 택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왕국에서 영원히 살 길이 확실히 준비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십니까? 혹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나의 처지는 꽤 괜찮다. 내 생활은 편안하고, 벌이도 좋고, 건강하고, 이만하면 성공적이다. 나는 가족에 충실하고 내 가족들도 비교적 행복하고, 전반적으로 나는 성공적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 장 16-21 절에서 바로 그런 사람에 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 *[누가 12: 16-21]*
>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사업에 성공을 이루고 재물을 축적하는 일은 결코 나쁜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물질적 부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물질적 부로 여러분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불쌍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영원히 후회하면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의 정의는 우리가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 날 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과 인생을 따스하게 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욕망과 포부, 우리 육체의 쾌락과 갈망함을 채우기 위한 성품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생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 또는 많은 재물을 축적하였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어 볼 때에 단지 죄인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 장 23 절에 사도 바울이 쓰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우리는 법적인 정의의 죄, 즉 사회적 범죄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가 갖 태어날 때에 범죄의 생각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가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 알게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이란 어떤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 애초에 모든 인간에게 이런 운명을 결정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이런 운명을 결정하신 것이 매우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중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멧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던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없더라도 상관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 인간이 어떤 성품과 특성을 가졌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닌 의심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라는 인간으로 이 땅에 약 2 천년 전 1 세기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 33 년 반동안 사신 것입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나와 같이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유혹을 경험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잔혹한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부활하시어 이제는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분은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험한 광야에서 40 주야를 굶주리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 당하신 경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홀로 기도하신 경험, 유혹과 시험을 당하신 경험, 신체적으로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구원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반당하신 아픔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아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한 모든 경험을 아직도 잘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시 103:14]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하도록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하는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이 선택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그 이유로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으므로 세상 종말에 있을 심판 날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주민이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곧 바로 받아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환경 중에서 가장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에덴 동산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에스겔 28:13]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두시고,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 높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담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뱀은 이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금지된 과일을 먹도록 꼬였고 이들은 그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2 장 17 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창 2: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리한 것이며, 그들이 절대 죽지 않으리라고 거짓으로 설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사탄의 설득에 넘어가 그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저주인 이 죽음은 신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 두 가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생명은 신체적 죽음의 날을 향해 나아갑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을 모른 채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여야만 영적인 죽음, 즉 에덴 동산 밖으로 축출 당한 상태, 즉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 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6 장 23 절에 죄의 삯과 하나님의 선물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혹자는 생각하기를, "과실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할만큼 심각한 죄가 됩니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 동기는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커다란 선물과 특권의 자리를 매우 가볍게 여기고, 다만 이제 이

금단의 과실을 먹어서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는 동기로 그 과실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 행위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발생한 잘못된 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가 아닌 이 잘못된 종교는 사탄이 각본, 감독하였고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주연을 맡아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작품인 이 잘못된 종교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소위 "혼합종교 (Syncretism)"에 발을 들여 놓은 아담과 하와는 이런 연유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는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 장 24 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마태 6: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만일 여러분 중에서 소위 크리스쳔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동시에 개인 생활에서 부도덕적인 습관이나 행위에 탐닉한다면, 만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대등한 또는 하나님이 차지하신 자리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육체를 동시에 섬기는 혼합 종교의 교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축복하실 수 없으며, 성령님께서는 그런 인생에서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비롯된 저주가 아담과 하와의 몸과 인생에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발하신 순간부터 이들 몸 속의 DNA 뿐 아니라 온 지구 환경이 그 저주의 영향하게 들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성으로 인해 사람들의 도덕적 퇴패의 정도가 점점 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 세기 동안에 6 백만명의 유대인을 포함하여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전쟁과 인재로 인하여 죽임 당한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극단 모슬렘 테러 분자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는 6 천여년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하나님의 샬롬, 즉 참된 평안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본문인 요한복음 3 장 16 절로 되돌아 가겠습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지극히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 여러분의 독자 아들의 생명을 바칠 의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생명을 바쳐야만 그 친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그 친구를 살리려고 죽음에 내어 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희생의 선택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없는 넓이, 그리고 한 없는 깊이를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훌륭한 계획 안에 포함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자발적으로 오시어서 그러한 자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희생물, 즉 어린 양이 되기 원하셨고 그렇게 자신을 기꺼이 바치신 사실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의로운 영혼으로 서게 되고, 그 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오시도록 움직이셨고, 그 사랑으로 매일 매일 헌신의 삶을 사셨고, 불의한 심판의 굴욕과 모욕과 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잔혹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희생 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죽음의 절망적 저주와 처벌을 피하고, 대신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 장 17 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요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꼭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영혼을 죄의 얽매임,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어 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남녀들,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노년 여러분 모두에게 손을 내어 초청하시면서 오라고 하십니다.

죄의 인생을 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모든 죄를 완전히 세탁할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세탁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그가 못박히신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요.

참으로 회개 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 날 것입니다. 죄와 절망의 어두움에 버려졌던 여러분의 영혼이, 영생의 참 희락과 행복으로 채워지고 하늘 나라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 장 1-2 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참으로 훌륭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슴을 선언합니다.

[롬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 속과 생활 속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인생에 그 분을 왕으로 모시는 바로 그 날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인도하여,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의 죄의 삶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적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 안에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분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첨단 전자 제품도 아니요, 무인 자동차도 아니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파티를 열기 위한 대 저택도 아니요, 언론에 내 세워 자랑하기 위한 해변가 별장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은 구세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 장 16 절에서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아가므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의 역사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회개하는 심령과 인생에 참된 해방의 이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 세기에 크리스쳔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고 핍박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받은 후에 아마도 약 3 년간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배움을 받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을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는 생명력 있는 메시지 임을 굳게 믿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자이던 가난한 자들이든, 학식이 많던 적던, 신체적으로 강건하던 연약하던, 종족과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여러분 가슴 속에 큰 종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 종소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요.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들리는 죄 사함을 갈구하는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요. 죄로 더럽혀진 인생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되고 싶은 염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요.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여러분 자신의 혼의 목소리를 존중하십시요. 그리고 주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과 함께 훌륭한 하늘의 사귐을 나누기 갈망하는 그 목소리를 따르십시요.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지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오늘날 그리스 땅, 빌립보에서 거짓 고소로 인하여 감옥에 같혀 있었는데, 한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죄인들을 묶은 사슬이 모두 풀리고 감옥의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탈옥한 줄 여기고, 자신의 근무 태만 과실에 대한 책임이 죽음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그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두 분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게 된 이 간수는 이 두분의 전도자를 밤중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와 모든 가족이 이들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령님이 이 가족으로 하여금 복음 말씀을 듣게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 장 30-33 절에 기록되기를,

[행 16: 30-33]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가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에 대한 바울과 실라의 대답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신하고 이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1 세기에 사도들이 전한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 이었으며, 오늘날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 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나 지난 20 세기를 거쳐오는 동안 몇몇 종교와 기독교 교파에서 이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모로 복잡하게 만들어 강요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매우 훌륭한 복음이 약속하는 축복이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값 없이 주어질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축복이 매우 값진 것이므로 무엇인가 값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그들은 얘기 합니다.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이것을 얻게 된다면, 신도들이 이 구원을 경시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적인 바탕입니다. 구원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서 공양미 삼백석을 절에 시주해야 한다고, 구원의 티켓 값을 교회에 바쳐야 한다고 신도들을 속여 물질과 헌신과 마음을 교회의 노예로 사로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분명히 기술하였습니다.

[엡 2: 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오직 하나의 요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양심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구원은 회개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며, 결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댓가를 지불해서 얻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간 구원 계획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실족할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우리에게 온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명백한 길을 제시하는 인간 구원 계획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분명히 쓰셨습니다:

[딤후 1:8-10]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믿는 모든 자들의 인생에서 사망을 폐하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우리 영혼이 썩지 아니하는 참 생명의 축복을 무료로 받게 됨을 선언하는 훌륭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수립하셨음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세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댓가나 요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위 십자가 위에서 모두 지불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를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참된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슴을 믿읍시다.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요한 복음 8 장 31-32 절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요 8:31-32]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사신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밝히 보이시는 가르치심과, 그리고 우리를 목양하는 목회자들의 돌봄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어떤 신학적, 영적, 심리적인 족쇄,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올가미로 우리를 구속하려 하는 모든 족쇄로부터 우리를 참되게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21 장 6-7 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 있는 자신의 보좌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계 21:6-7]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약 2 천여년 전에 이스라엘 갈릴리의 나사렛 이라는 작은 동네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사시고 복음 사역하셨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십자가 죽음의 표징을 지닌채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요건을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택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이 요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그의 일이 다 이루어졌슴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료로, 값없이 생명수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즐겨 먹으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훌륭한 축복이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심으로 무료로, 은혜의 선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복음의 선언을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의 불신과 자신의 욕심대로 살던 생활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과 그의 피의 공로를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줌으로써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롭게 만드는 그런 권능이 있음을 단순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원의 요건은 단지 그것 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구원의 기적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 인생 모든 분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영접하셨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아직 주 예수님을 모르고, 그분을 통한 구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를 통하여 회개의 마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주 예수님을 자신의 왕과 구세주로 영접하신다는 간절하고 참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분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날들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